반갑지 않은 고용 서프라이즈, 인하 기대감 후퇴로 약보합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Quant 고세은 _ kose@ls-sec.co.kr

고용 서프라이즈에 인하 기대감 후퇴, 경기 순환 기대감 상승

미 증시는 DOW -0.13%, S&P 500 -0.00%, NASDAQ -0.16%, Russell -0.38%로 약보합.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시킨 반면 경기 순환에 대한 낙관은 유지. 빅테크(-0.6%)나 소프트웨어의 부진으로 지수는 하락 마감했으나 경기민감업종은 견조. S&P500 기업 중 285 개 기업이 상승 마감. 반면 나스닥은 30%의 기업만이 상승 마감에 성공

11 개 섹터 중 에너지(2.6%), 필수소비재(+1.4%), 소재(+1.3%), 유틸리티(+0.9%) 등 8 개 업종 상승 마감. 금융(-1.5%), 컴스(-1.3%)는 부진. 반도체(+2.3%)는 HBM 공급 우려 해명한 마이크론(+9.9%)의 급등과 샌디스크(+10.6%), 웨스턴디지털(+4.3%), 아날로그디바이스(+2.6%) 등의 상승

미 국채 금리는 2Y 3.53%(+6.5bp), 10Y 4.18%(+3.5bp)로 상승. 고용보고서 호조로 인해 CME FedWatch 상 6 월까지 동결할 확률이 25%에서 41%로 급증. 7 월까지 동결 확률도 15%에서 27%로 상승. 유가는 WTI 기준 +1.44% 상승한 $64.8 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추가 항모를 파견할 수도 있다 발언하자 지정학적 리스크 경계심리 자극

원치 않던 고용 호조, 엇갈린 평가

1 월 비농업고용은 13 만명으로 컨센(6.6 만)을 크게 상회. 실업률도 4.3%로 컨센(4.4%)대비 양호한 수치. 최근 ISM PMI, 주요 소비 및 제조업 심리 지표 호조와 맞물리며 경기 순환에 대한 기대감 자극. 보건의료(8.2 만), 사회복지(4.2 만), 건설(3.3 만) 부문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 반면 금융(-2.2 만), 연방정부(-3.4 만)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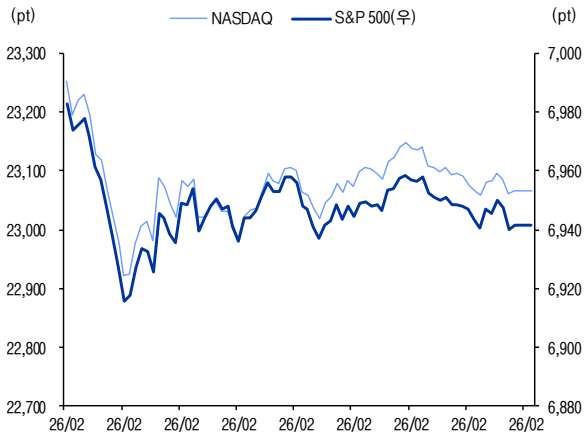
지역 연준 총재들은 매파적 입장을, 마이런 이사는 고용 호조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함을 언급. 캔자스 연은 슈미드 총재(투표권 x)는 현 통화정책은 제약적이지 않다고 평가. 해맥 총재(투표권 o)도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이며 지금은 기준금리 조정이 아닌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할 때라 주장. 한편 마이런 이사(투표권 o)는 연내 물가는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며 인하가 필요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금번 고용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 평가

AI Disruption Risk 확장, 다음 타겟은 부동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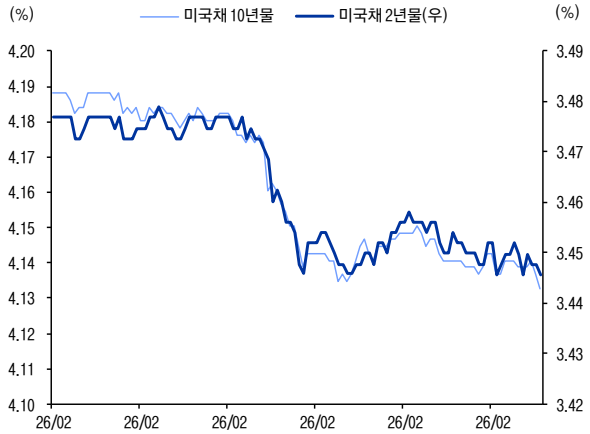
주요 IB 들 및 구루들의 낙관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AI Disruption Risk(AI 대체/파괴 리스크) 우려는 현재진행형. 모건스탠리는 인튜이트(-5.2%), 세일즈포스(-4.3%) 등 5 개 유망 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우려가 과도하다 평가했으나 주가 반응은 미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서비스나우(-5.5%), 세일즈포스에 대한 기회를 언급

한편 금일 AI 대체 리스크가 부동산 서비스까지 확장되며 CBRE(-12.2%), JLL(-12.4%) 등 급락. AI 기반 혁신에 취약할 위험이 있는 고비용,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변화 우려가 확산된 영향. 한편 제프리스는 CBRE 를 비롯 관련 업계 플레이어들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측면에서의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평가하며 위협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

Global 주요 증시



FICC



특징주: 여전히 흔들리는 S/W, MU 및 VRT는 강세 회복

소프트웨어 ETF: IGV — **-2.6%, 다시금 흔들리는 AI S/W**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타격이 AI S/W로 집중. 이에 마이크로소프트(-2.1%), 아마존(-1.3%), IBM(-6.5%), 세일즈포스(-4.4%) 등 관련 밸류체인 전반 하락. 알파벳(-2.4%)의 경우 AI S/W 매도세와 함께 EU 규제 당국의 반독점 규제 이슈도 동반. 이는 사이버 보안 기업 위즈(Wiz) 인수 시도에 따른 노이즈. 다만 AI 밸류체인 내 투자 수혜가 이어지는 메모리,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는 금일 강세 흐름. (하단 마이크론, 버티브 후술)

마이크론: MU — **+9.9%, HBM4 양산 및 출하 소식에 우려 불식**

CFO의 HBM4 양산 및 출하 소식 언급과 모건스탠리의 TP 상향 소식에 주가 강세. 마크 머피 CFO는 Wolfe 컨퍼런스에서 HBM4 칩의 대규모 양산 중이며, 출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언급. 12월 제시했던 가이던스 일정 대비 1분기 앞당겨진 결과라 강조. HBM4 공급 탈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 불식시키며 주가 강세. 모건스탠리도 디램 공급 부족 및 가격 강세를 근거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TP $350→$450로 상향. 샌디스크(+10.7%), 웨스턴디지털(+4.3%), 시게이트(+2.8%) 등 동종 기업 동반 강세

버티브: VRT — **+24.5%, AI 인프라는 건재하다**

4FQ25 실적발표. 매출 $2.88B, EPS $1.14로 컨센(매출 $2.89B, EPS $1.3) 하회. 컨센 하회한 실적에도 강력한 수주 성과와 가이던스가 시장 심리를 개선. ①폭발적 수요: 주문량 급증에 따라 수주 증가율이 전년비 +252%YoY 확대. CEO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량 증가를 언급. ②실적 가이던스: FY26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13.25B~13.75B, EPS $5.97~$6.07로 컨센(매출 $12.39B, EPS $5.33) 상회. 결국 금번 실적발표 시즌의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와 수혜기업 간 상이한 양상. 하이퍼스케일러는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압박 논란에 직면했으나, 인프라 기업들의 AI 수혜는 실적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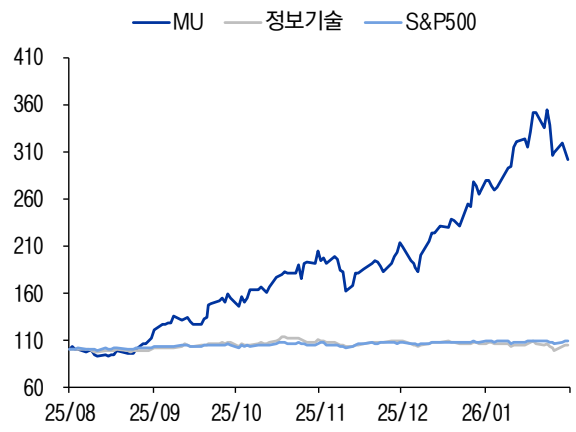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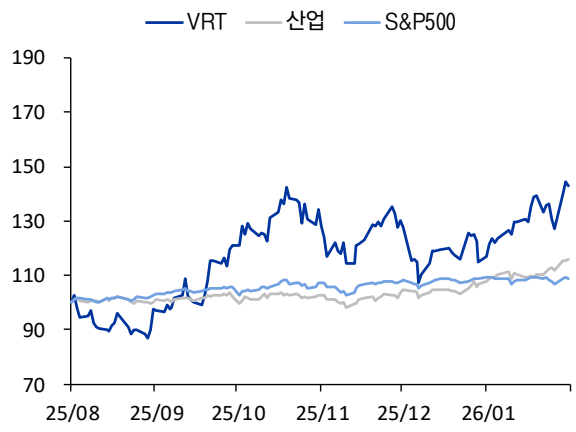
시스코: CSCO — **-0.8%, 마감 후 -7%대 하락, 높았던 기대치**

장 마감 후 발표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주가 하락. 2FQ26 실적은매출 $15.35B, EPS $1.04로 컨센($15.12B, EPS $1.02) 일제히 상회. 3FQ26 가이던스는 EPS $1.02 ~$1.04로 컨센($1.03) 부합.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에 단순히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며 시간 외 주가 하락 중. 특히 엔비디아 GPU 수요 폭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이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버린 AI 및 신생 클라우드 매출의 본격화 시점이 FY27로 예고됨에 따라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의구심을 품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기타 코멘트 — **MCD(-0.9%), MRNA(-3.5%), SHOP(-6.7%)**

맥도날드(-0.9%)는 글로벌 동일점포 매출 +5.7% 증가하며 장 마감 후 호실적 발표. 모더나(-3.5%)는 FDA가 신규 계절 독감 백신 판매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거부 소식에 주가 하락. 쇼피파이(-6.7%)는 컨센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에도 불구, 1분기 영업이익률 및 잉여현금흐름 마진 가이던스가 컨센 하회하며 주가 하락

마이크론: MU



버티브: VRT